

인생의 답과 결론을 발견한 전도자 솔로몬

-복음으로 여는 전도서-

전도서1:1-2, 마태 복음12:42

정윤돈 목사님

“끝없는 우주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만물을 만드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주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속아서 불신앙하여 죄를 짓고 이 땅에서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천명까지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훈련이 잘 되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개인, 가정, 이를 위하여 가문, 직장, 사업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 속에서 답과 결론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반드시 승리하여 전도, 영적 성장에 발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인생의 말년에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도서 1장 1절에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솔로몬은 아가서(청년), 잠언(중장년), 전도서(노년)의 3개의 책을 썼다. 사실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혜와 부귀를 누린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그러나 그는 말년에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쾌락과 풍요, 심지어 지혜와 지식, 책을 쓰는 것까지 헛된 것이라고 말한다. 복음과 전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면 모두 다 헛된 것이라고 말한다. 사실 복음 밖에 있으면 다 헛된 것이다. 이를 허무주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허무주의는 두 종류의 허무주의가 있다고 철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첫 번째 허무주의는 수동적 허무주의이다. 이것은 비관주의적인 허무주의이다. 두 번째 허무주의는 능동적인 허무주의이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모든 것이 허무하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찾는 현명한 사람들이다.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칸트, 니체 등은 모두 능동적 허무주의자들이었다. 나름대로 자신의 길을 찾아갔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인생의 답과 결론은 모르고 죽은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인생의 답과 결론을 발견했던 능동적인 허무주의자였다. 그는 세상의 쾌락과 풍요와 즐거움에 속지 않고, 허무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사실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은 공허한 것이다. 상담했던 알콜, 마약, 도박, 음란 등 모든 쾌락을 마음대로 누린 중독자들의 공통점은 모두 자살경험이 있었다.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참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았다. 히브리어로 전도자는 ‘코헬렛’이라고 하는데, ‘설교자, 모으는 자, 가르쳐 설교하는 자’라는 뜻이 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다락방, 지교회사역자이다. 여러분의 결론을 전도자로 내시기를 바란다. 우리는 솔로몬처럼 세상에 대해서는 복음 안에 있는 능동적인 허무주의자가 되어야 하겠다.

1. 첫 번째로는 전도자 솔로몬이 발견한 헛된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행한 다양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히브리어 ‘헤벨’은 ‘증기, 숨, 의미없음’을 뜻한다.

(1) 전도서 2장 2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지금으로 말하면 개그나 예능프로와 같은 것도 다 헛된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으면 좋은 작품으로 참된 기쁨을 줄 수 있다. 후대들이 복음을 가지고 주신 달란트로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 그래야 허무, 혼돈, 공허, 흑암이 되지 않는다.

(2) 2장 3절에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이것이 철학, 마음수련, 교양, 독서이다. 독서로 사람이 바뀌겠는가. 진정한 완전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강단말씀을 붙잡고 바뀌어주시기 바란다. 복음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이 전도의 문이 된다.

(3) ‘솔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음주가무해도 속만 쓰리고 결국에는 허무해진다.

(4)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바로 도덕철학, 정치철학, 윤리철학이다. 최고의 답, 최고의 이론은 없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 말씀 밖에는 없다.

(5) 2장 4절에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6) 2장 5절에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7) 2장 6절에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8) 2장 7절에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 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9) 2장 8절에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는 ‘왕은 후궁이 칠백 명이고 첩이 삼백 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은 이같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다.

(10) 2장 9절에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11) 2장 10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 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러나 2장 11절 하반절을 보면 그 모든 것도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철저히 절망하고 복음과 전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해야 한다. 복음 안에서 새로 발견하면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란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서 이제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당장은 안 되더라도 정확하게 알고만 있으면 바뀐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답과 결론을 내면 그때부터 급격하게 거듭나고 변화되게 된다. 이것이 전도서를 주신 이유이다.

2. 두 번째로는 전도자 솔로몬이 발견한 절대복음을 위한 참된 삶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그 삶은 가장 가치 있는 삶, 행복한 삶, 영원한 상급을 위한 삶이다.

(1)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절대복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을 깨달았고, 전달하기로 결단한 것이다. 전도서 7장 1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말씀은 약 천 년 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하고 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는 인간을 구원해줄 의인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 땅에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미리 깨달았던 것이다. 그래서 사실 모든 종교와 철학과 사상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철학자 니체는 아주 정직하고 실천적이고 천재적인 훌륭한 철학자였다. 그는 이 세상의 기존의 로마카톨릭 등 모든 종교와 이 때까지 세상에 있었던 모든 철학과 학문의 잘못을 발견하고 비판하고 파괴하였다. 그러나 그는 세상을 살리는 방법은 몰랐고 결국 자신은 작은 사건 때문에 정신적인 착란을 일으켜 10년 동안 정신병원에 있다가 죽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그의 철학을 따르고 있다. 우리의 수준, 기준, 표준, 상처는 복음으로 거듭나고 치유되어야 한다.

(2) 솔로몬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전도서 11장 5절 말씀을 보겠다. '바람의 길이나 어찌함과 아이 밴 자의 태에서 빠가 어떻게 자라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 근심과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바란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며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참된 행복과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허무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복음적인 허무주의라고 할 수 있다. 복음적인 허무주의란, 세상적인 성공과 풍요와 쾌락과 즐거움에 속지 않으면서도 혹시 이 세상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많을 지라도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3) 그래서 가장 바람직하고 성공적인 삶은 나이가 들기 전, 렘넌트 청년 때부터 정확한 복음을 가진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복음적인 체질을 만들어야만 세상에서 승리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모태에서부터 알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곧 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의 때가 마지막이다. 결혼하기 전에 완전복음의 체질로 만들어야 한다. 완전복음으로 다듬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완전복음, 완전사랑이 되어야 한다. 어떤 허물

도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야만 나도 지킬 수 있고, 상대방도 지킬 수 있고, 교회도 지킬 수 있다. 내가 갱신되고, 성장하고, 오직복음으로 가는 길은 많은 시간과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야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영접하고 30 다락방하고, 미션홈을 통해 빛과 소금이 되는 완전복음 체질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라는 것이다. 청년의 때에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란다.

(4) 네 번째로, 전도자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축복 된 삶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보겠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의 답과 결론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게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길, 방향, 답을 찾고 그 말씀이 성취, 응답되는 것을 보면 너무 행복한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말씀 주시는 것은 사랑의 권면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기를 바란다.

오늘은 전도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음적인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하고자 한다.

1. Covenant, 언약이다. 전도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언약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이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답과 결론이다. 이 결론과 답을 내려야 한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비전은 헛된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고 있는 237 나라와 5천 종족들에게 전도자의 가치를 알려주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의 사명을 위해 24시간 집중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실 줄을 믿기를 바란다.

4. Image, 이미지이다. 나에게 주신 전도의 RUTC의 그림이 확실히 그려질 때까지 집중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란다. 미리 보고, 찾고, 누리고, 정복하고, 성취하는 5가지 미래의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 받게 될 것이다.

5. Practice, 실천이다. 이번 주에는 전도보다 무엇을 더 좋아하고 있는지를 적어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것들이 헛된 것이라고 선언해보기를 바란다. 그때부터 전도자의 축복은 시작되어질 것이다. 이번 한 주간도 3천 제자를 위해 300 영접, 30 다락방, 3 지교회에 도전하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축원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팬데믹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천만배의 응답과 축복을 주시고, 전염병이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상황이 빨리 종식되어 우리가 237 나라,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표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은혜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이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잘 준비되어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모든 측면을 주님께서 함께 하여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